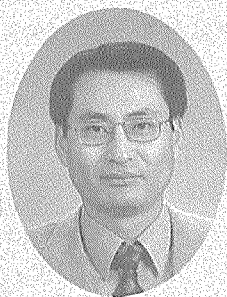


## 2000년 석유개발부문 결산



한 상 규

〈 한국석유공사 개발사업본부장 〉

우리나라 경제가 IMF 이후 또 한번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크게 감소했다. 1,100원대에서 안정을 유지하던 환율은 다시 1,200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여기에 경제 개혁에 따른 노사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난 6월 국제 월평균 유가가 30불을 넘어서면서 채감경기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고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국내소비석유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고유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은 국내에서 석유를 발견하여 진정한 산유국이 되거나, 해외 자주개발원유를 충분히 확보하여 유사시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업을 크게 대륙붕개발부문과 해외석유개발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륙붕 개발은 과거에는 Texaco, Shell 등 주로 외국회사에 의한 단독탐사형태로 이루어졌으나, '79년 석유공사 설립을 계기로 자주적 탐사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 결과, '98년 6월 대륙붕 6-1광구 고래V구조에서 양질의 가스층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99년 평가정 3공을 시추하여 경제규모의 매장량을 확인한 석유공사는 금년 2월 동해-1가스전의 공식적인 개발을 선언하였다. 가체매장량은 2000억 입방피트(LNG환산 400만톤)로서 이는 경남지역이 약 1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총수입이 1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 및 운영비 소요가 3억불 가량으로 추정되어 약 7억불 정도의 이익이 기대된다. 2000년 12월 현재 생산시설공사를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설계 및 시공을 완료하고 2003년 6월

본격적으로 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동해-1가스전 인근에 산재해 있는 유망구조에서 추가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3D 물리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의 유전들과 연장선상에 있는 서해분지에서도 탐사자료를 취득하여 전산처리중에 있다.

대륙봉에서의 이와 같은 활발한 탐사가 석유발견으로 이어져 우리나라도 진정한 산유국의 대열에 우뚝 서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해외유전개발은 IMF 이후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2000년 11월말 현재 23개국 5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종료사업까지 포함하면 36개국 98개 사업에 참여하였다.

< 진출현황 >

(2000년 11월말 기준)

구 분	국내전체		석유공사	
	진출국	사 업	진출국	사 업
○진행사업	23	55	12	18
- 생산	11	16	4	4
- 개발	6	6	3	3
- 탐사	18	33	8	11
○종료사업	27	43	11	16
총진출사업	36	98	20	34

'97년 이후 석유개발참여가 급감하였으나, 금년 4월 석유공사가 베트남 16-2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한 것을 필두로 대우가 미얀마 A-1광구 탐사사업에, SK가 브라질 BM-C-8광구 탐사사업과 페루 Camisea 광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다.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업체의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 '97년 이후 석유개발 참여현황 >

(단위:건)

구 분	'97	'98	'99	2000.11
민간단독	13	4	1	3
공 사	6	1	1	1

2000년 상반기까지 확보가채매장량은 약 846백만배럴에 달하나, 일일평균생산량은 4만배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예멘 마리브광구와 페루 8광구 외 대부분의 생산광구 국내지분량이 일산 1만배럴 이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자주개발원유 확보량은 약 7백만배럴로서 상반기 국내원유수입량 450백만배럴 대비 1.6%의 자주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 자주개발률 변화추이 >

(단위:천배럴)

구 분	'96	'97	'98	'99	'00.상반기
국내원유수입량①	721,927	873,415	819,094	874,090	450,407
자주개발원유②	8,574	13,369	15,164	14,589	6,993
자주개발률③/①	1.2	1.5	1.8	1.7	1.6

한편 석유개발 투자 및 회수실적은 2000년 6월까지 약 30억불을 투자하여 22억불을 회수함으로써 74%의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기대회수액 30억불을 고려하면 회수율은 17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해외석유개발에서는 베트남 15-1광구 탐사 사업 성공과 같은 주목할만한 성과도 있었다. 지난 9월, 한국측이 23.25%(석유공사 14.25%, SK 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 광구에 대한 시추결과 257백만배럴 규모의 원유를 발견하였으며, 주변의 유망구조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매장량은 4억배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 사업은 공사가 탐사단계부터 운영주체로 참여하여 원유발견에 성공한 첫 사례인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베트남은 정유공장이 없는데다 우리나라는 타 참여국에 비해 수송상의 이점이 있어 생산원유 전량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으므로 약 200일분의 비축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2001년 추가 탐사정 및 평가정을 시추한 후, 2002년 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10%의 자주개발원유 확보를 기

본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침체상태에 있는 석유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자주개발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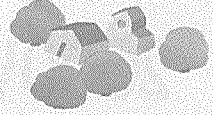
석유개발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투자비 회수에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석유개발투자비 30억 불 가운데 에특용자규모는 6억불로서 일본의 정부지원액 270억불에 비하면 2%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5%수준인 에특지원규모를 20%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독자적인 석유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석유개발참여업체 모두에게 융자형태로 자금을 분산지원하여 왔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석유개발에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이 주력업종의 보조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분산지원정책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국가들이 국영석유사를 설립, 집중육성하여 오늘과 같이 세계적인 석유회사로 발전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에너지전략차원에서 전문석유개발회사에 집중투자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탐사사업은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탐사위주의 사업추진으로는 자주개발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탐사사업과 병행하여 연간 6~8천만배럴 규모의 매장량 확보를 위한 생산유전 매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탐사사업과 생산사업간의 적정 포트폴리오를 통해 Cash flow 창출은 물론, 매장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석유수요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석유수요는 매년 200만b/d 가량 증가하고 석유의존도도 40%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석유시장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중심으로 한 주요산유국이 석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은 유가변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용어해설



• 환리스크

최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폭등하면서 기업과 일반 국민들은 IMF사태 이후 환율(exchange rate)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통합으로 외환 거래가 24시간 이뤄지고 국제적인 핫머니가 광속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날아다니고 있어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환 리스크(exchange risk)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환 리스크란 외국 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다. 환율은 두 통화간의 교환 비율로서 원화 환율은 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값어치를 나타낸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특정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 나라의 물가 상승률, 금리차, 정치·사회의 안정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치가 떨어지는(절하) 통화를 갖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되는데 이를 환차손이라고 하며 반대의 경우를 환차이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며칠 전 외국에서 5000달러를 쓰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 결제 때보다 10만원 이상 더 지불해야하는 환차손을 보게 된다. 지난 이틀 동안 환율이 달러당 25원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외환 거래가 많은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들은 이런 환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환 헤지 전략의 일환으로 선물환(forward exchange) 거래를 주로 이용한다. 선물환이란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미리 정한 금액의 외환을 약속한 환율로 거래하는 계약이다. 수출업자는 수출계약과 동시에 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